

작물보호산업! 자신감이 필요하다



김용환 박사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석좌교수

커뮤니케이션 교육 과정 중에 “엘리베이터 스피치(elevator speech)” 라는 교육과정이 있다. 엘리베이터 스피치란 의사결정권자와 같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고 가정하고 1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사업구상이나 하고 있는 일을 효과적이며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1분 이내에 우리가 하는 일들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1분이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웃들이, 소비자들이 농약(작물보호제)에 대해 물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우리가 생산하는 농약이 안전하니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과거와는 달리 요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혈연, 지연적인 측면에서 점점 농업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자연히 농업에 대한 이해도 낮아지고 있다. 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이미 전

체 국민대비 6% 이하 수준이다.

광복 70년 농업의 변화 여정을 다룬 한 신문 기사에 의하면, 2014년 우리나라의 총부가가치 대비 농림어업분야 비중은 2.3%로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의 48.2%에 비해 2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농민신문 2015년 8월 14일). 이는 농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이 비농업분야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작년에 일어난 소위 ‘농약 급식’ 논란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인 싸움이었는지는 새로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과학적 토론과 검증의 장이 그 입지를 잃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타깝게도 생산을 담당하는 농산업 분야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올해와 같이 녹조, 적조 현상이 발생하면 언론은 화학비료의 과다사용에 초점을 맞춘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화학비료의 사용은 줄어드는데 강물의 녹조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올바른 정보에서 올바른 정책이 나온다는 진리는 자명하다.

글로벌 조사 회사인 에델만(Edelman

Berland)의 보고서는 농업 일선과 일반 소비자 간의 괴리를 잘 보여준다(The Agricultural Disconnect, 2013). 농업 선진국과 후진국을 망라한 전 세계 13개국 8천여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서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물, 토지 그리고 노동력 등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거나 현실과 큰 괴리를 보여준다. 몇몇의 예를 들어보자.

식량 확보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농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여기면서도 도시농업과 유기농업을 선호한다. 새로운 과학기술로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방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농약, 비료,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용을 줄이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림 1). 증산을 위해서는 더 많은 농지와 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증산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다른 산업과의 노동력 확보경쟁에 대해서는 이해의 폭이 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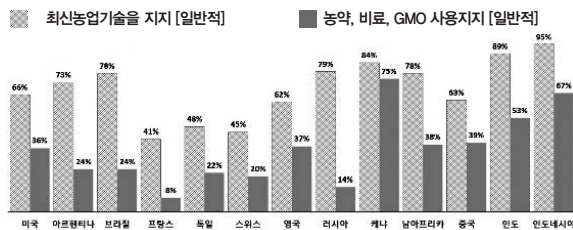


그림 1. 최신농업기술에 대한 각국 소비자들의 선호도 : 보편적으로 최신농업기술을 지지하나 특정기술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참고 : The Agricultural Disconnect Global Research Report 2013, Edelman Berland)

이와 같이 농업에 대한 이해는 낮은 현실에서 점점

줄어드는 작물보호산업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회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내부적인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져본다.

1. 농업은 기본적으로 환경친화적인가?
2. 전 세계가 농업생산 방식을 유기농업으로 바꾼다면 70억 인구를 부양 할 수 있을까?
3. 궁극적인 관점에서 농약은 생물다양성 유지에 기여하는 것일까 아니면 악영향을 끼치는 것인가?
4. 자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하여 가난한 나라에서 농지를 개발하는 것이 윤리적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5. 잔류농약이 허용한계 이하로 존재할 때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6. 새롭게 개발하는 농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하는 실험들은 의약 보다 광범위한가?
7. 논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8. 곡물자급률이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식량안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9. 경자유전의 전통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농지와 농업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바뀔까? 식물공장이 농지를 대체할 수 있을까?

미래지향적인 작물보호산업을 위해 우리 모두가 고민해 볼 질문들이다.

작물보호산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한 축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외부에 대해 자신감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 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만큼의 합당한 제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㉞